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2

February 2006

| 권두칼럼 |

수도권의 경쟁력

왕 연 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포커스 |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

김 경 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정 희 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도권발전연구단장)

| 자치구경제이슈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활성화

전 성 근 (성동구청 생활복지국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금융/부동산

| 부록 |

통계표

2006.02

차 례

권두칼럼	3	수도권의 경쟁력 왕연균(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포커스	9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 김경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정희윤(서울시정거발연구원 수도권발전연구단장)
자치구경제이슈	29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활성화 전성근(성동구청 생활복지국장)
경제동향	41	요 약
	42	경 기
	52	고 용
	60	금 융
	68	부동산
부록	77	통계표

수도권의 경쟁력

세계화의 빠른 진전은 세계적으로 거대도시들(Global Cities)의 거대한 경제통로(Economic Corrido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통로의 일부인 우리 수도권을 억제함으로 수도권 경제통로는 좁아지고 한국경제는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전국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기업그룹, 대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해야 하며, 성장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양산업의 인력이 성장산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발전 지원을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왕연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kwang@cau.ac.kr

수도권의 경쟁력이란 세계 대도시권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도권에 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 교통, 주택, 교육 등 생활환경은 얼마나 좋은가 하는 척도를 말한다. 수도권의 경쟁력은 다음 요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첫째, 지방과 차별되는 수도권 정책, 둘째,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기업 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정부정책이다. 일본이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빠르게 변화하여 왔고 중국경제가 크게 부상함에 의해서 우리경제의 핵심역할을 해온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면서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어있다. 오래 전부터 정부가 수도권투자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인구, 경제활동이 밀집해 있어 교통혼잡, 높은 주택과 지가문제, 환경오염 등으로 인구와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에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이외에도 신행정수도건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왔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천, 부산, 광양에

경제자유지역,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를 설정하고 수도권 이외지역에 경제발전특구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도 지방발전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경쟁 외국도시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지방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방투자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기업과 투자의 해외이전, 국내 투자부진, 고용악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외개방 거부와 지나친 규제, 적절한 정책의 부족 때문이다. 세계화의 빠른 진전은 세계적으로 거대도시들(Global Cities)을 더욱 크게 하고 경제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교역이 주로 거대도시들 간에 이루어지고 정보, 기술, 구매력, 연관 산업이 많이 있어 거대도시들이 산업, 기업, 고용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이다. 거대도시에서는 고급 교육 및 연구기관, 고급의료기관, 고급서비스업이 발전한다. 많은 상품, 자본, 정보, 기술, 사람의 왕래는 주로 세계 대도시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도시들은 거대한 경제통로(Economic Corridor)를 이루어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 통로는 주변도시,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 이 통로의 일부인 우리 수도권을 억제함으로 수도권 경제통로는 좁아지고 한국경제는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지칭하는 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12%인 11,730km²를 차지하며 인구의 46%, 취업

자의 47%, 국민총생산의 48%, 연구개발인력의 66%, 벤처기업의 72%, 정보통신종사자의 70%, 특허등록의 76%, 은행예금과 대출의 67%, 고급 지식과 기술 인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도소매와 같이 생산 활동과 관련된 생산자 서비스 종사자의 68%와 많은 첨단제조업이 수도권에 있어 수도권은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가능성이 많다. 낮은 기술과 저임금 기업은 대부분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 중이다. 지난 10년간 전국 제조업 취업자수는 50만 명 줄었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55만, 66만 명이 감소하였다. 경제의 서비스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2002년 정부서비스와 민간 비영리 서비스부문을 제외한 총 취업자 중, 서비스부문 취업자비중은 전국 77%, 수도권 78%, 서울 85%이다. 앞으로 서비스부문이 가장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수도권에는 R&D, 첨단제조업, 고급서비스업이 몰려 있어 한국경제를 선도하여 왔다. 수도권경제가 전국경제를 앞서서 이끄는 선도성은 통계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수도권경제가 활성화되면 전국경제가 활성화되고 수도권경제가 둔화되면 전국경제도 둔화된다. 그리고 수도권경제는 전국경제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수도권 투자규제가 국가경제 발전과 일 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관세, 비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거래 자유화가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국경 없는 세계경제의 일부가 되어있다. 서비스 및 지식기반사회가 된 현재에는 지식, 정보, 기술 인력이 많은 거대도시가 세계 어디서나 대부분의 기업, 직장을 창출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가장 싸고 좋은 것을 세계 어디서나 구입하고자하는 아웃소싱(out sourcing) 시대가 되었다.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싸고 품질 좋은 경쟁력을 가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하며 도시는 기업이 이러한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어야한다.

우리나라 임금이 아세아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다음에 가장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 물류, 판매 등에서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산업과 사업서비스 및 기타 고급 서비스업의 경우에 많은 기업들은 수도권 투자를 선호한다.

현재 수도권에는 공장 총량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있고, 4년제 대학 신설이 금지되고, 대학정원 총량이 규제되며 취득등록세가 3배, 재산세가 5배이고 중앙청사외의 공공청사의 신축도

금지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은 첨단제조업 신·증설에 있어서도 외국기업에 비해서 몇 배나 적은 수의 업종에서만 투자가 허용되는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 소득세, 법인세 감면 비율에 있어서도 수도권기업에는 낮은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많은 규제외국기업들과 국내기업들이 수도권투자를 포기하고 외국을 선택하거나 계획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동경, 파리, 런던 등도 국제경쟁력 증진을 위해 오래전에 대부분의 수도권 투자규제를 해제하였다. 수도권에서도 첨단제조업, 교육, 의료, 관광, 연예, 연구개발을 포함한 서비스업에의 투자규제를 속히 해제하여야한다. 일본 동경에서와 같이 수도권 에서도 교육, 의료, 문화, 외국어 등 여러 가지 경제발전특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평준화를 탈피한 창조적 수월성 교육이 가능토록하고 외국학교, 외국병원이 영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권 기업 종업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시설, 외국의 일류 학교와 의료기관, 게임 및 연예시설 등도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에 허용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자유지역과 제주도에 아직도 외국분교와 외국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없다. 지방발전을 위한 교육특구나 의료특구에도 물론 외국학교와 외국병원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게임과 세계적 연예시설, 휴식공간은 관광객을 유

치하는데 필수적이다. 중국, 싱가포르, 일본에 이러한 산업의 선점을 허용하고 결국 막대한 우리의 국부 유출만을 가져오고 있다.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완전개방과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동경,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도시보다 생활여건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도권 광역 전철망을 구축하고 완행과 급행라인을 같이 설치하면 교통, 교육, 주택, 지가,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 역사의 복원 작업도 필요하다. 각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이 우수인재를 경쟁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평준화 해체 내지 완화가 필요하고 전 국민의 평생교육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발전 지원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지방에 지방자치권을 강화하여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각 지방은 그 지방에 적합한 산업클러스터와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분권화가 필요하다. 지방농축수산업이 첨단과학과 접목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지방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 입지를 살린 서비스업을 일으켜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전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기업그룹, 대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해야 한다. 기업 총액투자 한도제, 부채비율 상한제, 금융의 결권 제한,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 등에 대한 규제완화, 일본,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것이다. 무역자유화와 중국과의 무역확대로 농축수산물과 저가 제조품의 수입이 많아지고 있고 이것은 일부도시와 지방에 더욱 많은 충격과 도전을 주고 있다.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므로 성장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양산업의 인력이 성장산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SDI